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6 홍해작전 6월 6일(목) 새벽부터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96 홍해작전의 행진이 6월 6일(목) 새벽 5시에 시작한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걸어서 홍해를 건넜던 역사적 사건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현재의 갖가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의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6. 25 기념일이 포함된 6월, 특별히 현충일인 6일에 개전하는 홍해작전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의 폭을 넓히는 기간이기도 하다.

특별히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로서 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필요를 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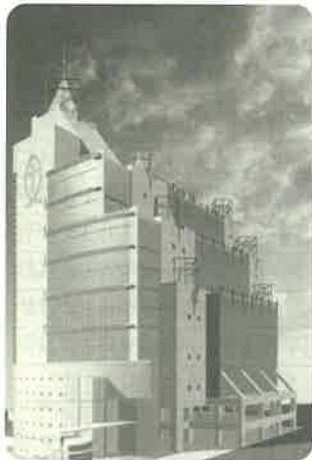
이번 홍해작전의 사령관인 이종윤 목사는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이번 홍해작전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웃에게도 참여를 독려하고 자가용 함께 타기 등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회가 될 것도 당부하였다. 또한 “일년 내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때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기도의 유익을 맛보아 앞으로 평생 새벽기도회를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승전감사예배를 드리는 23일까지 18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에 시작하여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한다.

이번 홍해작전의 개요와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96 홍해작전 개요

- 기 간: 1996년 6월 6일(목) ~ 6월 23일(주일), 18일간
- 주 제: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 주제성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3절)
- 행동강령: 1. 기도의 벽돌을 나도 함께 쌓는다.
2. 능력의 지팡이로 장애물을 제거한다.
3.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운다.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윤 목사



'96 홍해작전 기도제목

1.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2.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게 하옵소서.
3. 불길같은 성령이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소서.
4.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지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5.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되심 같이
우리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6.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지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의와 평강과 화평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7. 구원의 주님이시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공동의회소집

장로 선출에 관한 건

6월 2일(주일) II부 예배 후

우리교회 당회는 오늘 II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7명의 장로를 선출한다. 투표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이며 참석대상은 본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 전원이다. (관련기사2면)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 수료식

“현대사회와 교회”라는 주제로 3월 25일에 시작한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5월 27일에 종강하였다. 로마서 연구와 더불어 한국교회 성장둔화의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던 10주간의 강의를 통해 737명의 참석자들은 좀더 폭넓은 목회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제 9학기 종강예배 현장에는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에 참석 중이었던 외국인 목회자들도 함께 하여 한국의 목회자 재교육 현장을 돌아보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9일(수) II부 예배 시간에 종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도 막을 내렸다. 참가자들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새벽기도회, 다락방모임, 산상기도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강의와 토론, 현장학습을 통해 얻은 것을 돌아가서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종강예배 시 이종윤 목사는 김치(김치)를 연상할 수 있는 수저셋트를 참가자들에게 선물하며 “두개가 있어야만 제구실을 하는 것가 락처럼 십자가 복음을 위해 협력하자”고 하였다. (관련기사3, 4면)

장로후보



1. 이영기



2. 성준경



3. 김영준



4. 김상철



5. 서문석



6. 이재권



7. 김일용



8. 박두호



9. 하영수



10. 노송성



11. 왕경래



12. 이재원



13. 윤찬오



14. 박정선



15. 허희철



16. 임상헌



17. 권영복



18. 임훈규



19. 박동준



20. 조정식



21. 황정욱



22. 이복규



23. 이관규



24. 홍성주

번호	이름	출생년도	수세년도	작분	교회봉사	학력	직업(근무처, 직위)	가족
1	이영기	1945	1963	협동장로	탁아부 부장, 순례자 편집인, 베들레헴찬양대장	대졸	사업 / 대원통산 대표	이영숙 집사와 3남 1녀
2	성준경	1942	1974	안수집사	차량관리위원, 시온찬양대원, 다락방장	고졸	사업 / (주) 하주산업 대표	장낙희 집사와 2남 1녀
3	김영준	1945	1960	안수집사	제직회 서기, 새가족부 부감, 바울 4선교회장, 다락방장, 베들레헴찬양대원	대졸	회사원 / (주)한국유리 이사	박태희 집사와 2남
4	김상철	1947	1964	안수집사	예배위원회 서기, 건축위원회 실행위원	대학원졸	변호사, 한미우호협회 회장	최원자 집사와 1남 1녀
5	서문석	1947	1969	안수집사	교육위원회 서기, 장년부 부감, 다락방장, 베들레헴찬양대원	대졸	공무원 / 서울시청	한춘홍 집사와 2남 1녀
6	이재권	1942	1983	협동장로	유치부 부장	고졸	중개업 / 아산만공인중개사사무소	김연옥 집사와 3남
7	김일용	1930	1957	안수집사	모세선교회장, 재정위원회 계수위원	대졸	회사원 / (주)우일해운 이사	김옥남 집사와 2남 1녀
8	박두호	1949	1979	안수집사	차량관리위원, 베드로 4선교회장, 다락방장	고졸	사업 / (주) 유일특수 대표	한성옥 집사와 1남 1녀
9	하영수	1943	1978	안수집사	청년부 부감, 재정위원회 계수위원, 건축위원회 실행위원	고졸	사업 / (주) 함양종합건설 대표	박정순 집사와 2남
10	노송성	1943	1986	안수집사	가브리엘찬양대 부대장, 다락방장	대졸	회사원 / (주)대한항공 상무이사	이영옥 집사와 1남 1녀
11	왕경래	1939	1982	안수집사	교육위원회 회계, 사랑부 부감, 다락방장, 베들레헴찬양대원	대학원졸	대학강사	김정희 집사와 1남 2녀
12	이재원	1947	1962	안수집사	찬양위원회 서기, 베들레헴찬양대 부대장	대졸	회사원 / 건설회사 전무이사	김운숙 집사와 1남 2녀
13	윤찬오	1938	1958	안수집사	재정위원회 계수위원, 다락방장	고졸	회사원 / 웅진코웨이 지부장	홍재식 권사와 1남
14	박정선	1945	1978	안수집사	할렐루야찬양대 지휘	대학원졸	교수 / 단국대	김남순 집사와 1녀
15	허희철	1947	1965	안수집사	가브리엘찬양대 지휘, 시온찬양대 지휘	대졸	회사원 / (주)희승산업 이사	이연숙 집사와 2남
16	임상헌	1952	1972	안수집사	중등부 부감, 베들레헴찬양대원, 베드로 6선교회 부회장, 법률상담	대졸	변호사 / 임상헌법률사무소	서희숙 집사와 3녀
17	권영복	1939	1956	안수집사	유치부 부감, 다락방장	대졸	건축업 /	이옥녀 집사와 3남
18	임훈규	1942	1959	안수집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 중등부찬양대 지휘, 바울 2선교회 부회장	대졸	회사원 / 한일산업 상무	정경자 집사와 1남
19	박동준	1943	1973	안수집사	재정위원회 계수위원, 차량관리위원, 베들레헴찬양대원, 다락방장	대졸	회사원 / (주)대원관리 부사장	오정화 집사와 2남 1녀
20	조정식	1951	1970	안수집사	차량관리위원, 베드로 4선교회 부회장, 다락방장	고졸	사업 / 대원에너지 대표	김영식 집사와 1남 1녀
21	황정욱	1940	1967	안수집사	재정위원회 계수위원, 다락방장	대졸	사업 / (주)삼흥통운 대표	주경자 집사와 1남 2녀
22	이복규	1947	1981	안수집사	제직회 부서기, 재정위원회 계수위원, 다락방장	대졸	회사원 / (주)동부건설 부장	한명순 집사와 1남 1녀
23	이관규	1948	1971	안수집사	차량관리위원	—	사업 / 대동축산 대표	이순영 집사와 1남 1녀
24	홍성주	1946	1971	안수집사	재정위원회 계수위원, 바울 6선교회 부회장	대학원졸	교사 / 동대문상고	여현진 집사와 2녀

“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어 … 봉사과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행1:24, 25)

김치신학세미나 참가자들이 본 한국교회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자명종”

-한국교회에 대한 인상은...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를 처음 해보았다. 우리교회에도 적용하고 싶다.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는데 내가 본 한국교회는 자명종 같았다. (멜번 리 다인 / 뉴질랜드)

▲큰 도전을 받았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한 것은 지난 날 핍박을 견뎌낸 결과일 것이다. 한국경제가 수출에 주력했던 것처럼 김치세미나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경험과 신앙체험도 세계각국에 수출하면 좋을 것이다 (바투말라이 사다얀디 / 말레이시아)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온 신앙인들에 대해 문화적으로 이해 못할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김치 세미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어 감사한다. 한국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 성장했다. 호주교회는 현재 호주사회에서 변두리로 물러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호주교회 간에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다. 그리고 예수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충격적인 이 시대의 사명으로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케이스 로우 / 호주)

▲개교회인 서울교회가 이와 같은 신학운동을 펼치는 것을 매우 감동깊게 받아들였다. 한국과 서사모아는 문화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교회생활도 비슷해서 고향에 온 것처럼 느꼈다. 이번에 특히 기도생활의 모습을 크게 배웠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하는 의욕에 가득 차있다. 우리나라 교회에도 그런 의욕을 심는 계기로 삼고 싶다. 그동안 신학교 교장으로 아시아와 세계 여러나라를 방문했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연속기도운동으로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영적으로 맑은 깨끗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 국토가 통일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세계교회에 많은 공헌을 하기 바란다. (밀로 실라타 / 서사모아)

▲한국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강조하는 교회다. 성경대로 사랑을 실천하여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해 은혜를 받았고 기도원방문, 산상기도를 통해 소중한 현장체험을 하였다. 성서공회를 방문하여 생생한 성경발달사를 공부하면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목회자신학세미나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돌아가 목회자 교육을 시도해 보겠다. (나리안 네어 / 피지)



“한국교회의 성장은 과거 핍박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 돌아가 한국에서의 신앙경험과 교회의 비전을 전하겠다...”



▲한국은 처음 방문했다. 평소애 한국교회에 대해 잘 듣고 있었지만 실제 방문해 보니 한국교회는 교회자체가 선교의 장이며 교인 한사람 한사람이 선교사였음을 알게 되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도 큰 의미가 있다. 인도네시아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선교운동의 불씨가 된다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비전을 가진 교회다. 특히 개교회인 서울교회에서 김치신학세미나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갖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이메이드 마스트라 /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선교사들의 활동에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 유럽선교사들이 실패하고 돌아갔다. 한국 선교사들은 실패해서는 않된다. 선교사 자신들의 센터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것만으로 선교현장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었다.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선교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아쉽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은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국선교사들에 대한 의견은...

▲말레이시아에서는 19세기 영국선교사들이 영국적 신앙을 강요하다가 실패했다. 영국선교사와는 달리 한국선교사는 말레이시아 문화에 동화되어 선교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가끔 경제적 우월감으로 현지인을 천대하는 경향은 영국선교사와 다를바 없다. 한국선교사의 선교철학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현지 지도자 양성과 현지인 지도 선교전략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

▲한국에 와있는 외국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선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울교회가 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뉴질랜드)



-자국복음화를 위한 기도제목은...

▲나라 전체가 모슬렘화되어가고 있으며 교회가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한국교회의 기도협력을 요청한다. 제자훈련, 선교훈련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150년 교회역사를 갖고 있으나 현재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피지, 파푸아뉴기니, 인도안섬 등 남태평양 군도가 진정으로 거듭나 복음화되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피지)

▲교회역사는 100년을 넘어 전인구의 93%가 기독교인이지만 이름뿐인 교인이 많다. 교인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선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간다. (서사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기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사랑과 애정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고 다인종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해소되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한다. 불신자들의 모임은 많아지고 신자들의 모임은 나뉘어만 간다. 하나가 되게 기도 바란다. 2백년 전 영국계 사람들이 이주해 온 뒤 원주민들은 경제, 국민복지, 직업 등 여러면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살고 있다. 성령으로 깨어지고 사랑으로 겨안아 주고 복음으로 해결되도록 원주민 선교를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호주)

▲물질만능주의적인 사고가 깨어지고 부지런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뜻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말레이시아)

▲125년전 백인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해왔다. 원주민인 마우리족이 무시되고 여러 종족간 다원문화로 인해 문화장벽이 심하다. 서로 주장하지 말고 함께 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다원문화와 여러부족간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기도 부탁한다. 현지에서 불려지는 정의와 평화의 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인도네시아)

-새벽기도가 힘들지 않았는지...

▲어려움이 없었고 매우 도전적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벽기도를 배웠다. (말레이시아)

▲돌아가면 새로운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다. (호주)

▲우리나라에는 새벽기도가 없어졌다. 돌아가면 이를 회복하고 싶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땅에 계시실 때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서사모아)

▲새벽에 많은 사람이 기도할 수 없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영적인 힘이다. 기도를 생명처럼 알고 돌아가서 시행하겠다.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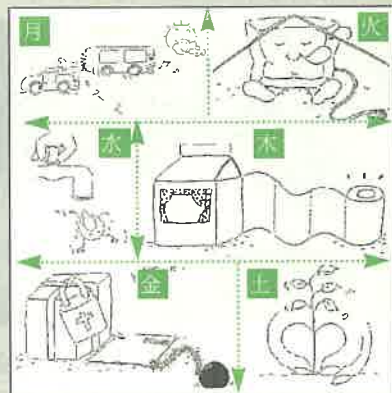


우리는 창조질서의 청지기

0... 오늘은 한국교회가 "환경주일"로 선언하고 이번 주간 (6월 2~8일)을 환경주간으로 지키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된 요일별 환경보호 방안이다.

월요일은 '공기(空氣)'에 초점을 맞추고 자가용의 사용을 삼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로 정했다. 화요일은 '에너지(火)' 절약 실천을 위해 TV를 보지 않는 날로, 수요일에는 물(水) 사용을 반으로 줄이는 날로 정했다. 목요일은 '나무(木)' 사람의 날'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폐지활용을 늘이는 날이며, 금요일은 '돈(金)'을 아끼며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고 물건구입을 삼가는 날'로 했다. 토요일은 '흙(土)'을 만지며 식물을 돌아보는 날'이다.



창조질서의 청지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한 번 실천해보자.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9시 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세명의 강단』 매주 금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에 참가하여 승전할 수 있도록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3.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4. 목회자세미나와 김치신학세미나 수료자들을 위해
5. 자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창조질서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